

보 도 해 명 자 료 (15.3.3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“저장률 38% 여수 석유저장 탱크, ‘오일허브
프로젝트’ 사업성 의문” 관련 보도에 대한 해명
(15.3.3, 조선일보 B03면)

1. 기사내용

- ☐ 동북아 오일허브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운영 중인 여수 ‘오일허브 코리아여수(OKYC)’의 실제 저장률이 2월말 현재 38%에 그치고 있음
- ☐ 2월 들어 국제유가가 반등했음에도 저장률은 1월보다 오히려 하락하였으며, 오일허브의 사업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많아지고 있음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

- ☐ 석유 저장시설의 사업성은 특정시점에서의 ‘저장률’이 아니라 시설 임대를 통해 수익을 발생시키는 ‘계약률’에 따라 결정되며,
 - 여수 오일허브의 ‘저장률’이 낮아 사업성이 의문시 된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이 아님
 - * 시설 임차인은 계약된 저장 시설 內 석유 입·출고를 상황에 따라 수시로 결정하며, 이에 따라 탱크터미널의 저장률은 수시로 달라지게 됨
 - * 싱가포르 내 석유 저장시설의 평균 사용률도 약 50% 수준으로 추정
- ☐ ‘14.10월 이후 탱크터미널 상황이 ‘콘탱고(contango)’로 전환되어 여수 저장시설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, 이에 따라 OKYC는 ‘15.3월 현재 100%의 계약률을 달성하는 등 활성화되고 있음
 - * contango : 석유거래시장에서 선물가격이 현물가격보다 높게 형성된 상황

- ◆ OKYC 계약률 추이: (13)75.6% → (14)87.7% → (15.3)100%
- ◆ OKYC 물동량 추이: (13) 15,754천 배럴 → (14) 49,010천 배럴(211% ↑)

※ 관련 문의 :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 이용환 과장 (010-6277-3954),
문상민 서기관(010-4723-3695), 김준겸 사무관(010-9231-0264)